

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타당성, 효과성,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했고, 기존대비 국가채무도 대폭 개선됐습니다.

< 보도내용 >

- 2026.9.17.(목) 조선일보 [동서남북] 줄부가 된 정부, 미래대응기금 속도전」에서,
 - “지방 국립대 공짜 등록금 2000억원, 청년문화예술패스 8000억원, 농어촌 기본소득 1조2000억원” 등 정책이 “타당성 검토 없이,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”되고,
 - 국립대 등록금 지원 “정책이 지방 국립대를 거대한 ‘재수학원’으로 만들고, 지방 사립대를 초토화”하고, “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도 타당성 검토가 미흡”하며, “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더 악성”이고,
 - “‘반도체 돈벼락’을 맞은 정부가 줄부 흥내를 내고 있다. 뒷감당은 미래를 살아야 할 청년의 몫”으로 “덜어 놓고 쓰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.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- 미래대응기금뿐만 아니라 '27년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은 타당성, 효과성, 집행가능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편성하였습니다.

<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>

-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단순한 등록금 지원을 넘어, 학생에게 ‘지역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’는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정책입니다.

-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른 만큼, 학생에 따라 추가 지원액은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.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도 지방국립대 지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국립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초기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
- 또한 자퇴 등 중도 이탈 시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분을 제외한 추가 지원금 전액을 누적·반환하도록 하고, 지방 사립대에 대해서도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인원을 4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대책도 추진 예정입니다.

< 청년문화예술패스 >

-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모든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와 예술인의 새로운 창작·공연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산업의 선순환을 위해 확대·반영하였습니다.
- 청년층의 패스 이용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외에 추가적인 문화소비를 유발*하여 문화예술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.
- * 패스 사용 시 추가 결제액이 지원금의 41.1% 수준(문화예술위, '25년 패스사용 분석)
- 또한, 청년층의 다양한 여가 관련 수요에 맞춰 지원 범위를 기존 공연·전시·도서·영화에서 체육 분야까지 확대하였습니다

< 농어촌 기본소득 >

- 농어촌 기본소득은 반도체 등 산업 성장의 과실을 모든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하고,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선순환 구축으로 지방주도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- 올해 시범사업이 도입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, 소비도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*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며, 지방에서도 사업추진에 높은 관심**을 보이는 상황입니다.

* '26년 본예산 10개 지역 평균 인구증가율 +5%, 신규 가맹점 +15% 확대

** 올해 추경분 추가공모 시, 미추진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이 공모에 참여

- 아울러, 인구유입 효과가 한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농촌경제연구소* 등의 분석 결과도 고려하여 '27년 정부안에는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

* "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추세 변화와 의의"(26.8.12일)

< 지역 5성급 호텔 건립 지원 >

- 지역 5성급 호텔은 지역의 부족한 고급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여 **관광객의 방문과 체류를 확대**하고, 지역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.
- 5성급 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은 단순 숙박을 넘어 **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거점**으로 기능하여 **체류기간과 지역 소비 확대**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.
- **숙박·식음·문화·관광을 연계한 고부가가치 수요**를 지역으로 유도하여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**민간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**을 촉진하고자 합니다.

<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>

- 성장의 과실을 **지역과 국민의 일상까지 확산**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**생활 인프라**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.
- **문화, 건강, 체육, 돌봄** 등의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**복합·집적화**하는 시설로,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 기능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합니다.

* 총 180개소, 개소당 (신축형) 최대200억원 / (리모델링형) 최대100억원 국비 정액 지원

- 한편,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'27년 48.3%로 '26년보다 3.3%p 낮아지며, '30년까지 40% 후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 예정*입니다.

* 기존 계획 추세 대비 10%p 이상 개선

(기존 계획상 '30년은 '25~'29 중기계획 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)

- **추가 세수 중 12.5조원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**에 활용하고, 재량·의무지출 삭감을 포함한 **지출 구조조정(△107조 규모)**을 실행하는 등 **채무 관리 노력**을 추진하고 있으며,

- 더 나아가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29.7% 확대하고, 반도체·퍼지컬 AI·AI 데이터센터 등 ‘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’에 21.3조 원(+97.2%),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62.8조 원(+22.7%)을 편성하는 등 성장동력 투자를 대폭 강화했습니다.

담당 부서	예산실	책임자	과 장	김정애 (044-214-2330)
	예산정책과	담당자	서기관	하치승 (hcs017@korea.kr)
	인적자원예산과	책임자	과 장	최진광 (044-214-2530)
		담당자	사무관	이한결 (gksruf14@korea.kr)
	문화체육관광예산과	책임자	과 장	박성주 (044-214-25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현 (estherfather@korea.kr)
	농림해양예산과	책임자	과 장	류재현 (044-214-2750)
		담당자	사무관	박근형 (rmsgudkorea@korea.kr)
	지역예산과	책임자	과 장	정석철 (044-214-29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재원 (jwkim11@korea.kr)